신앙감정론과 관련 있는 편지 모음(길레스피와의 왕복 서신)

편지 · 편지 2: 에드워즈가 길레스피에게 (1747. 9. 4)

『신앙감정론』 부록 「신앙감정론과 관련 있는 편지 모음(길레스피와의 왕복 서신)」 중 편지 2, 인쇄 661~676쪽

🧭 흐름 한눈에

길레스피 목사는 1746년 11월 24일자 편지에서 『신앙감정론』의 몇 대목에 반론을 냈다. 이 편지는 그에 대한 에드워즈의 답장이다. 에드워즈는 먼저 오해를 푼다. 영적인 빛이 없는 사람에게도 믿을 의무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빛 없이 믿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둘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넘어진 성도는 확신을 먼저 받아서가 아니라 양심이 깨어나고 겸손해지는 길을 거쳐 회복된다고 증언한다. 참된 성도라면 회심 전과 후의 삶이 눈에 띄게 다르다는 주장도 다시 붙든다. 그다음 길레스피가 물은 두 가지 난제에 답한다. 하나는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 특히 우울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다. 다른 하나는 로마서 8:28이 성도의 죄와 퇴보에도 해당하는지다.
에드워즈의 결론은 이렇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곧 하늘 성전에서 그 성도가 설 자리에 맞게 다듬는 일을 반드시 이룬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가 '최선'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죄를 애통하고 거룩을 힘써야 할 이유는 조금도 줄지 않는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에드워즈는 서신 교환 제안을 반갑게 받는다. 소개해 준 아버크롬비 목사에게도 감사한다. 그러면서 길레스피가 책을 끝까지 읽지 않고 반론부터 낸 점을 아쉬워한다. 길레스피의 주장은 이렇다. 성도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은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 아래 있다. 영적인 빛이 없는 사람도 믿어야 한다. 에드워즈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두 문장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빛이 없는 사람에게도 믿을 의무가 있다”는 참이다. “빛이 없는 상태 그대로 믿는 것이 의무다”는 모순이다.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고 아는 것은 믿음 안에 본래 들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 없이 사랑하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진짜 의무는 그 무감각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오해의 뿌리를 '없이(without)'라는 말에서 찾는다. 자신은 이 말을 '믿는 행위'에 붙였고, 길레스피는 '의무'에 붙여 읽었다.

1. 모든 사람은 지금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빛이 없어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3. 그러나 빛 없이 믿는 '행위'는 모순이다
4. 영적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다
5. 오해의 뿌리는 '없이'를 어디에 붙였느냐다

> **요한일서 3:23**
> 아들의 이름을 믿으라는 계명은 살인 금지처럼 지금 지켜야 할 의무임을 보여 준다(두 사람의 공통 전제)
>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에드워즈는 책에서 이미 이렇게 썼다고 상기시킨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와서 믿어야 한다.” 여기서 '어둠 속에 있음'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잠시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죽은 듯하고 육적이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상태다. 에드워즈가 반박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무감각하고 태만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참 믿음”이라는 원리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자기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여긴다. 오히려 다르게 사는 사람을 '율법적'이라고 깎아내린다. 이것이 자기 확신에 찬 위선자의 모습이다. 에드워즈는 자기 표현이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것임을 독자라면 다 알 것이라고 말한다.

1. '어둠'은 하나님 얼굴빛의 부재가 아니다
2. '어둠'은 영적 눈멂과 죄 가운데 사는 삶이다
3. 죄 속에 살며 확신을 누리는 사람이 과녁이었다
4. 이들은 바르게 사는 이를 '율법적'이라 부른다

> **이사야 50:10**
> (편지에 장절 표기는 없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이다. '어둠 속의 믿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즐겨 쓴 구절로, 이 논쟁의 배경이 된다
>
>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 3.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 아니다 — 회복은 각성으로부터

길레스피는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은 죄”라고 말했다. 에드워즈가 보기에 이 말은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것 = 불신앙', '자기 구원을 확신하는 것 = 믿음'이라고 전제한다. 에드워즈는 이 전제를 거부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어둠과 영적 퇴보에서 건짐받는 길이다. 죄를 버리는 것이 곧 죄에서 건짐받는 길인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참 성도로 보였던 사람들이 큰 퇴보에서 돌아온 순서는 늘 같았다. 먼저 양심이 깨어난다. 하나님의 진노와 은총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새롭게 겸손해지며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깨닫는다. 그 뒤에야 하나님이 위로와 은총의 감각을 새로 주신다.

1. 믿음 ≠ '내가 믿는다'는 확신
2. 구원을 의심하는 것 ≠ 불신앙
3.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회복이다
4. 회복의 순서: 양심 → 두려움 → 겸손 → 위로
5. 죄 가운데 확신부터 주시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 **(편지에 직접 인용 없음)**
> 에드워즈는 이 부분을 성경 구절이 아니라 책의 해당 대목(266~267쪽)과 목회 현장의 관찰로 뒷받침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구출입니다."

📜 4. 전적인 순종, 그리고 회심 전후의 뚜렷한 차이

에드워즈는 길레스피에게 요청한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죄 된 삶을 계속 사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점에 대해 자기가 든 성경 구절이 왜 부족한지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더 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길레스피는 책의 한 문장을 문제 삼았다. "참 성도는 회심 전과 후의 차이가 사라질 정도로 퇴보할 수 없다." 반례로 다윗과 솔로몬을 들었다. 에드워즈는 그 문장의 뜻을 좁혀 밝힌다. 비슷한 처지와 비슷한 시험 아래에서 비교하면 성도의 삶은 전과 뚜렷이 다르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경에 회심 전후를 비교할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불확실한 사례라고 답한다. 반면 자기가 인용한 성경의 가르침은 확실하다. 성도는 속사람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도 새로워진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른다.

2. 다윗·솔로몬은 비교 자료가 없는 불확실한 예
3. 불확실한 사례로 확실한 성경을 꺾을 수 없다
4. 새로워짐은 내면만이 아니라 겉 삶까지다

> **고린도후서 5:17**
>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회심 전후의 실제 차이를 뒷받침한다
>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로마서 6:4**
>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으로, 변화가 삶의 걸음으로 드러남을 보인다
>
>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 **로마서 6:19**
> 지체를 불법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어 드린다는 말씀으로, 몸과 행동까지 새로워짐을 보인다
>
>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 5.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 특히 우울한 사람을 돕는 법

길레스피는 사탄에게 끊임없이 공격받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물었다. 에드워즈는 먼저 어떤 유혹인지 알아야 조언할 수 있다고 답한다. 세상 욕망을 채우려는 격렬한 유혹과, 우울(당시 말로 melancholy, 마음과 몸이 함께 가라앉아 이상하고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드는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생각은 다르게 대해야

떠오르는 생각에 매달리지 말고,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다. 이유는 이렇다. 우울한 사람에게는 그런 싸움을 할 힘이 없다. 사탄은 싸움을 붙여 사람을 일상에서 떼어 놓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 간교함을 부릴 기회를 얻는다. 그 결과 우울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약해져 미궁에 빠진다. 이런 경우에는 마귀를 무시하는 사람이 마귀를 더 잘 이긴다.

1. 유혹의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다르다
2. 우울한 이에게 정면 영적 싸움은 해롭다
3. 생각을 돌리고 일상의 의무를 이어 가라
4. 떠오르는 생각에 매달리지 말고 기도로 맡기라
5.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이 사탄의 목표다

> **야고보서 4:7**
> (편지에 장절 표기는 없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배경이다. 에드워즈는 우울한 이에게는 무시하고 일상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대적이라고 풀어 준다
>
>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 6. 로마서 8:28의 두 원칙 — '선'이지 '최상'이 아니다

둘째 난제는 이것이다. 퇴보와 부패에 빠진 성도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맞는가? 에드워즈는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사도의 말에서 확실히 끌어낼 수 있는 두 원칙을 세운다.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그 사람에게 가능한 '최고의' 행복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모든 택자에게 전능을 최대한 쏟아 최상의 행복을 주신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도마다 은혜와 영광의 분량을 다르게 주신다는 사실이 무시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곧 택자를 아들의 형상에 맞게 거룩하고 행복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만큼'의 선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성도는 산 돌처럼 하늘 성전에서 자기에게

읽으면 성령께서 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멈추시는 것도 유익이고, 약한 은혜로 살다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터무니없는 결론이 나온다.

1. 모든 일이 성도에게 '선'이 된다
2. 그러나 모든 일이 '최상의 행복'은 아니다
3.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의 분량을 달리 주신다
4.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분량을 이룬다
5. 결핍과 보류가 늘 더 나은 것은 아니다

> **로마서 8:28**
> 이 편지 후반부 전체가 풀어내는 본문이다
>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로마서 8:29**
> 택자를 아들의 형상에 맞게 예정하셨다는 말씀으로, '선'의 내용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임을 보인다
>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베드로전서 2:5**
> (장절 표기는 없음) 성도를 산 돌에 비유한다. 각 사람이 하늘 성전의 정해진 자리에 맞게 다듬어진다는 그림의 바탕이다
>
>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것이 최상의 선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7. 죄와 유혹은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고, 어떤 의미에서 해인가 (논점 1~6) ^

두 원칙 위에서 에드워즈는 논점을 하나씩 세운다. (1) 하나님은 좋은 일뿐 아니라 결핍을 통해서도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게 하신다. 그러나 그 유익은 보류된 은혜가 주어졌을 때의 유익과 같지 않다. 그래서 성도는 그 차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본다. (2) 하나님은 이 땅의 경험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일하심으로 사랑의 계획을 이루신다. (3) 성도가 처음부터 흠 없는 천사가 아니라 죄 많고 타락한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은 은혜와 지혜로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더 크게 만든다. 이 점에서는 죄도 유익이 된다. (4) 그러나 이 땅에서 퇴보한 채 회복하지 못하고, 죄 죽이는 일과 사랑·겸손에서 자라지 못한 만큼은 죄가 유익이 아니다. 빛이 줄면 어둠이 늘 듯, 죄가 늘면 거룩은 준다. 그리고 거룩이 적은 만큼 받을 상도 적다. (5) 유혹에 넘어진 성도도 유혹이 아예 없었을 때보다는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혹을 이겼을 때보다는 손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으로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특별한 상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6)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넘어짐을 오히려 더 큰 승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약속되어 있지 않다. 많이 지고 적게 이기는 삶이 일반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1. 결핍 속의 유익은 보류된 은혜보다 작다
2. 타락한 피조물이었기에 얻는 은혜의 영광이 있다
3. 죄가 늘면 거룩이 줄고, 상도 줄어든다
4. 넘어짐은 유혹이 없던 것보단 낫고 이긴 것보단 못하다
5. 넘어짐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나 약속은 아니다

> **로마서 8:28**
> '선'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립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지 구별하는 대상이다
>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요한계시록 2:1~3:22**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

디모데후서 2:3~5

(장절 표기는 없음)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그리는 그림이다. 자신을 가장 잘 드린 군사가 가장 큰 상을 받는다는 논점의 배경이다

[3]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 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특별히 — 하늘 성전의 자리 (논점 7~10)

(7) 로마서 8:28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성도에게 늘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난 중에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 더 특별하고 탁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때는 유혹과 원수와 고난까지 모든 면에서 최선의 유익이 되고,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긴다. (8)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계획은 성도를 하늘 성전에 마련된 자리에 맞게 하여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좋은 것이든 결핍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계획을 이룬다. (9) 그러므로 지금 큰 상처를 주는 유혹도 결국은 그 자리에 맞게 다듬는 데 쓰인다. 성도는 겉보기에 위로 없이 약해진 채 죽더라도, 자기 자리에 가장 맞게 된 바로 그때에 죽는다. (10) 하나님은 이 일을 은혜를 빼시는 방식이 아니라 더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신다. 그렇지

셈이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넘어지더라도 죽기 전에 회복되어 전보다 높은 데 이른다. 기쁜 감정이 없을지라도 더 깊은 지식과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견고해진다.

1. 사랑을 지키는 성도에게 약속이 더 탁월히 이뤄진다
2. 모든 일은 하늘 성전의 자리를 준비한다
3. 성도는 자기 자리에 가장 맞을 때 죽는다
4. 하나님은 은혜를 빼지 않고 더하며 완성하신다
5. 넘어진 성도도 죽기 전에 회복되어 성숙한다

> **로마서 8:35~37**
> 환난·핍박·칼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까지 유익이 됨을 보인다 (재료의 '롬 9:35~37'은 8장의 오기)
>
>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 이기느니라

> **빌립보서 1:6**
>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약속이다. 성도의 은혜가 끝에 줄어들 수 없다는 핵심 근거다
>
>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 우리는 확신하노라

> **마태복음 12:20**
>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심판하여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사탄이 은혜를 꺼뜨려 이길 수 없음을 보인다(번역의 '연기나는 불못'은 '꺼져 가는 심지'를 뜻함)
>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20이 인용한 원래 약속이다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 9. 세 가지 결론과 맺음

에드워즈는 앞의 논의에서 세 결론을 끌어낸다. 첫째, 로마서 8:28이 참이어도 성도는 자기의 영적 메마름을 애통해야 하고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며, 성도에게 영원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약속이 있다고 해서 죄를 피하고 거룩에 자라며 선한 일에 힘쓸 동기가 헛되지 않다. 하늘에서 더 높은 영광을 바라고 노력하는 것은 정당한 동기다. 셋째, 성도가 넘어질 때 성도 자신은 손해를 보지만, 사탄과 원수들은 언제나 완전히 실패한다. 그들이 꾸민 유혹과 죄조차 결국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긴 경우보다는 작더라도 유혹이 없던 경우보다는 크다. 끝으로 에드워즈는 보스턴 목사의 은혜 언약 견해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사중상태』는 다 읽었고 매우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며 편지를 맺는다.

1. 약속이 있어도 죄는 애통하고 책임져야 한다
2. 더 큰 상을 바라는 거룩의 노력은 정당하다
3. 성도는 손해를 봐도 사탄은 반드시 실패한다
4.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겸손한 맺음

> **로마서 8:28**
> 이 약속을 핑계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노력을 멈출 수 없음을 결론짓는다
>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적인 빛·시각
성령께서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실제로 '보게' 하는 깨달음이다. 에드워즈는 이것이 믿음 안에 본래 들어 있다고 본다.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는 자기 상태에 대한 확실함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와는 다르다.

어둠 속에 있음
이 편지에서는 영적으로 눈먼 채 죄 된 삶을 사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잠시 느껴지지 않는 상태와 구별된다.

영적 퇴보
참 성도가 열심과 거룩에서 뒤로 미끄러져 메마르고 죄에 빠지는 상태다.

율법적
은혜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는 비난의 말이다. 위선자들은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

섭리
하나님이 세상과 각 사람의 일을 다스려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이다.

분여
하나님이 은혜나 상황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다.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지 않고 보류하시는 것도 포함한다.

택자
하나님이 영원 전에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들이다.

우울(melancholy)
18세기에 마음과 몸이 함께 가라앉아 이상하고 두려운 생각에 시달리는 상태를 부르던 말이다.

참된 은혜 없이 신앙의 겉모습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 편지에서는 죄 가운데 살며 '어둠 속의 믿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들을 말한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영적인 빛이 없어도 믿을 의무는 남는다. 그러나 빛 없이 믿는 것은 불가능하니, 어둠에서 나와 믿어야 한다.
- 구원의 확신은 믿음과 같지 않다. 넘어진 성도는 확신이 아니라 각성과 겸손을 거쳐 회복된다.
- 참 성도의 삶은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하면 회심 전과 뚜렷이 다르다.
- 로마서 8:28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의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지, 죄와 결핍이 최선이라는 말이 아니다.
-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애통하고 거룩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더하시고, 사탄은 결국 실패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25편 · 사탄도 흉내 내지 못하는 것 · 길레스피에게 보낸 편지와 내 신앙 점검표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